

## ANDA H Investor Letter

정치적 공백기

2024.2Q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장의 주가지수는 역사적 신고점이거나 52주 신고점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국가별 실업률은 최저선에 있고 소비 역시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참여자들은 아직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시장입니다.

GDP는 더 이상 M2의 증가로 성장하지 않지만 시장은 여전히 16년간 지속되었던 통화시장이 끝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명을 하였듯이 FED라는 통화시장에 2008년 리만사건이후에 입원을 한 이후에 이미 몸이 건강해졌지만 퇴원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지나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1년 전후로 COVID가 우리 시장에게 던진 파문은 앞으로 5년의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현재의 시장을 관통하는 지표는 통화유통속도입니다. 2008년 리만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였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진 것도 당연하지만 역사적인 M2 value를 가지고 있는 현재 통화유통속도의 10% 상승은 시장에 \$2T정도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20년 최저점에서 2022년까지 낮게 유지되었던 통화유통속도는 이미 저점 대비하여 20%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니 2022년 이후에 정체가 되었던 M2에서 시장의 상승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미 실물시장은 우리에게 \$4.2T의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 시장이었던 2006년까지 복귀를 하게 된다면 현재 기준에서 GDP는 60%의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100년의 금융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매우 화려합니다.

다만, 2024.11.05까지의 정치적 공백기는 중국에게는 시간을 주었고 유럽에게는 고민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공백기에서는 발생하는 뉴스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2024.09에 Quarterly Letter를 작성할 때 쯤에는 많은 이슈들이 소멸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측된 역사기준 가장 화려한 시장의 초입기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홍근 드림

2024.06.30